교회소식

1. 전주함께하는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 목회실에서 환영 및 면담시간이 있습니다.
2. 주보에 기재된 주간 나눔의 말씀을 읽고 가정 및 소그룹교제의 시간 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 2011표어:가서 제자 삼아라(마28:19)
4. 전도실천:①금년도 전도대상 정하고 기도하기. ②직접 전도하기
5.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무료악기레슨이 있습니다.(의뢰:김부자 집사, H.010-8223-9742).
6. 중국비전트립팀이 선교지를 방문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원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11년 하반기 성경대학 초급반 개설 안내가 게시판에 공고되었습니다. 모집요강 및 원서 접수는 행정실에 비치하였습니다.
8. 오명현 전화: 010-2773-9258

Holy Community

1.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생각 첫째를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요나단의 행위에서 깨닫는 점을 서로 나누어보세요.

2.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생각 둘째를 정리해 보세요.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정리해 보세요. 우리가 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변치 않으려면 어떠해야 하는가를 나눠보세요.

3.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생각 셋째를 정리해 보세요. 인간적인 정과 신앙의 관계를 나눠보세요.

4.우리가 요나단의 처신에서 소중한 면을 깨닫게 되는데 첫째와 둘째를 정리해 보세요. 오늘 메시지에서 꼭 붙들어야할 점을 한 가지씩 말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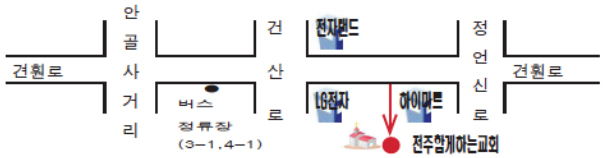
전주함께하는교회안내

1.우리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동전주노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칼빈주의 개혁신학을 기반으로 세워진 교회로서 교회 이름은 "함께하는교회(Together Community Church)"인데,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사실을 뚜렷하게 드러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우리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에 두고, 그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하며, 개혁주의 신학과 그 유산들인 '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신조', '돌트신경' '벨직신앙 고백서' 등을 배우며, 그 교리를 실천하는 현실적 증표를 거룩한 사귐과 헌신을 우리교회의 표지(얼굴)로 삼았습니다.

3.우리교회는 바이블아카데미 안에 성경대학을 개설하여 초급반(기독교교리공부 10주과정)과 중급반(성경의숲을보는교육 8개월과정)과 고급반(역사, 사상, 문화관, 세계관 공부, 약 2년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우리교회는 이단이 난무한 시대에 이단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안내해 주고 치유해 주는 사역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전주함께하는교회
Church.Community.Together.

2011년 8월 21일

함께하는교회표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순전한 말씀 선포
*개혁주의 신앙 실천
*거룩한 사귐과 헌신

바이블 아카데미

1. 성경대학 운영
2. 기독교 사상 세미나
3. 회복 사역 센터
   (이단상담 & 치유)

공동체 예배시간

주일함께하는예배	10:30
유초등부	12:40
유투공동체	14:00
오후예배	15:30
수요예배	19:30
금요기도회	21:00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주함께하는교회

담임목사 오명현
부목사 이택남
장로 김희준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812-5
(☎ 245-0391, FAX 242-0191)
(✉ dasisijac326@hanmail.net)

2011 가서 제자 삼아라
Go Make Disciples (마 28:19)

주일함께하는예배

오전 10시 30분 — **인도:오명현목사**

전 주(프롤로그)		반주자
시편낭독	시148:1-2	오명현목사
영 광 송	630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성삼위송	8장	
성시교독	교독문 34번	
경 배 송	482장	
기 도		김민수 집사
교회소식		오명현 목사
성경봉독	삼상 20:12-23	
봉 헌	314장	헌금위원 정재용집사
봉헌기도		오명현목사
말씀강론	**다윗과 요나단의 참된 우정**	오명현목사
기 도		인도자
송 영	6장	다 같 이
축 도		오명현목사
후 주		반 주 자
교회소식		인 도 자

※ 다음주 기도: 이정환 집사 ※
※ 헌상 위원:정재용 집사 ※
안내위원:김민수,서희정,옥윤수,김은혜

주일 오후 예배	본문		창4:16-24
	말씀	가인주의	오명현 목사
	기도		

수요 예배 안내	본문	행17:10-15	
	말씀	**베뢰아 사람들의 신앙**	오명현 목사
	기도		박성미 집사

오명현목사

눈함 깔께 점하

개 짖는 소리

목회칼럼

아침에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가끔씩 노란색이 섞여있는 거무스레한 개가 눈에 띈다. 혹시 저 개가 눈에 띈 개똥과 관련이 없는지 괜한 의심을 해본다. 늦은 밤에 귀가하느라 아파트 골목길을 가노라면 어느 집 베란다에서 조용하게 짖는 개소리를 듣곤 한다.

모처럼 처가에 들렸더니 개막에서 개들이 짖어댄다. 개들의 몸집에 따라서 짖는 소리도 다양하다. 하이 소프라노(깨갱 깨갱)에서부터, 베이스(멍멍, 멍멍), 바리톤(멍어엉 멍! 멍!)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렇지 않아도 더운 날에 목청껏 짖어대는 개들을 보면서 묘한 생각을 했다.

그런데 개 짖는 소리를 사람의 말로 통역해 주는 통역기가 나와 화제이다. 일본 장난감 회사에 근무하는 다카라 토미라는 사람이 이 통역기를 개발했다고 한다. 개의 감정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번역해 준다고 한다. 개가 갖고 있는 슬픔, 위험, 즐거움, 행복 등의 감정을 주인에게 전달해 준다고 하니 공상 과학영화에나 나올법한 이야기인 것 같다.

정말 개의 감정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 개는 한 동물로서 본능적 감정에 충실할 뿐인데도 사람들이 마치 의사소통의 대상이라도 되는 듯 도에 넘치는 생각을 한다. 개는 그저 본능적인 반응으로 짖을 뿐인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색칠하는 것 같다.

개 짖는 소리와 관련된 속담들을 보면 그럴듯한 교훈이 숨겨져 있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즉, 겉으로 떠드는 사람은 도리어 실속이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짖는 개는 야위고 먹는 개는 살찐다" 즉, 사람도 늘 징징거리고 울상을 하고 지내거나 불평이 많아 앙앙거리면 마르고 이로울 것이 없다는 의미이다. 개 짖는 소리에서 사람이 얻어야 할 교훈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개 짖는 소리를 선지자의 사명에 비유해서 한 말을 볼 수 있다. B.C. 750년경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을 떠나 배은망덕하게 살고 있었다. 각종 우상을 섬기고 공의가 사라지고 사회적인 약자를 외면하는 비정의 사회가 되었다. 그런데도 마땅히 백성들을 깨우고 각성하게 해야할 지도자들이 침묵을 하고 있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지도자들을 '벙어리 개'라고 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개의 사명은 짖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개가 짖으므로 도둑의 침입을 막고 사나운 짐승의 접근을 막는다. 만약에 개가 짖지 않으면 도둑놈들이 활개를 칠 것이다. 개 짖는 소리는 이웃집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귀찮은 소리이며 큰 소음이다. 그러나 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 짖는 소리를 그냥 귀찮은 소리로 짜증나는 소리로 치부하기에는 의미심장한 그 어떤 뜻이 있어 보인다.

개 짖는 소리가 시대를 일깨우는 선지자의 소리라면 좀 많이 짖어댔으면 한다. 개 짖는 소리는 각종 예술로 표현될 수 있다. 세태를 풍자화 한 마당극, 저항 시, 계몽 소설, 영화 등이 개 짖는 소리가 될 수 있다. 이조 왕조에 큰 메시지를 준 [홍길동전], 일제 강점기의 [3·1 독립만세], 채만식의 [태평천하], 4·19 시대를 대변하는 최인훈의 [광장] 등이 시대별로 나타난 개 짖는 소리였다. 특히 김지하의 [오적(五賊)]은 70년대의 재벌과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군)장성, 장차관 등 특수 계층을 적(賊)으로 표현하면서 이들의 부정부패를 걸쭉하게 풍자한 시로 잘 알려지고 있다.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은 인간의 가슴 밑바닥의 언저리에 향수처럼 그려져 있지만, 시대의 소슬바람에 잠들기 좋아하는 또 다른 태만 때문에 개 짖는 소리는 필요한 것 같다. 어쩌면 글 쓰는 일도 개 짖는 소리를 문자화 것일 수도 있다. 언론의 사명도 이 시대의 대중을 깨우는 개 짖는 소리일 수 있다. 멍! 멍! 개 짖는 소리를 감각 없이 들으면 그건 정말 개 짖는 소리에 불과할 것이다. ■

한주간나눔

성막을 세우는 조각목과 휘장

출26:15-37

앞에서는 성막을 덮은 휘장들과 덮개들을 살펴보았다. 본문에는 성막의 구조상 성막을 받쳐줄 기둥과 판자가 필요했다. 기둥과 판자가 튼튼하지 않으면 성막을 세울 수 없다. 또한 성막을 짓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도록 했다. 그 구분을 휘장이 하도록 했다. 그래서 외부를 감싸는 휘장과 덮개와는 또 다른 휘장을 준비해야 했다.

1.조각목을 준비하라(15-30)

①조각목은 아카시아나무를 뜻한다. 이 나무는 가시가 돋고 단단하고 질 긴 것이 특징이다. ②이 나무로 법궤와 채와 떡상들과 성막을 받쳐줄 판자를 만들었다. ③각 널판의 길이는 4.56m이고, 넓이는 68.4cm이다. 성막의 남쪽과 북쪽을 위하여 널빤지 20개씩을 만들고, 서쪽을 위해서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모퉁이를 위해서는 2개씩 만들어서 세우라고 했다.

2.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라(31-37)

①휘장은 히브리어로 '파로케트'로서 '구분', '분리'를 뜻한다. ②역시 그 재료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베실이다. ③금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고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고 했다.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게 했다. 또한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제소를 두라고 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번씩 들어간다.

금 8/26

성막은 일반의 집과 다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생명을 공급받는 은혜의 장소이다. 이렇게 세세하게 준비하게 하신 것은 인간에게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한주간나눔

제단을 만들어라

출27:1-8

성막 안에는 물항아리가 있고 제단이 있다. 다른 말로는 번제단이라고도 한다. 번제라는 말은 '올라간다'는 말이며 단이라는 말은 '학살하다', '죽이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번제단은 동룸을 완전히 죽여서 불로 태워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소를 의미한다. 번제단 위에서는 매일 향기로운 희생의 속제 제물이 올려졌다. 따라서 이 희생제물은 인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1.번제단의 구조

①제단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5규빗(2.28m)으로서 정사각형이다. ②제단의 네 모퉁이에는 뿔을 만들고 제단의 부속품은 놋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놋제단이라고도 부른다. ③놋으로 그물을 만들어 사면을 둘러싸고 제단을 옮길 때는 양편 고리에 꿰어 단을 운반하도록 했다. 단은 조각목으로 만들되 속을 비게 했다.

2.놋제단이 상징하는 의미

①놋 제단이 있는 곳을 성막 안뜰이라고 한다. 이 뜰 안에는 할례 받은 이스라엘 자손만 들어갈 수 있다. ②제단 위에는 언제든지 제물을 태울 수 있도록 불이 항상 피워져 있다(레6:13). 놋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고(신28:22-24), 강한 능력과 승리를 상징하기도 한다(계1:15). 번제단이 놋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속의 능력과 승리의 상징인 십자가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토 8/27

번제단의 네 뿔은 제물을 줄로 매는 데 사용된다(시118:27). 제물을 묶어 희생시키는데 필요한 것이다. 결국 번제단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상징한다. 죽을 죄인도 제단 뿔을 잡을 때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제단은 제단의 대표적이고 본질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어야 한다.

수 8/24

적용

성막의 울타리 높이는 2.5m이다. 이는 사람 키보다 높아서 울타리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다. 또한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동쪽에 하나밖에 없다. 성막 안과 밖은 구원과 저주를 분명하게 구분한다. 성막 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밖에 없는 문으로 가야 하듯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요10:9).

성막을 세울지니라 출27:9-19

한주간나눔

본 장은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를 볼 수 있다. 성막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인 대로 세워야 한다(출26:30).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쉐칸'이라고 하는데,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성막은 또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 회막(천막출27:21), 성소(출25:8), 증거막(민1:50), 법막(대하24:6), 여호와의 전(삼상1:9), 시은소(은혜를베푸는장소) 등이 있다.

1. 성막의 전체 구도

①먼저 성막의 전체 구도를 보면, 먼저 울타리가 있다. 울타리의 크기는 길이가 100규빗(45.6m)이며 넓이가 50규빗(22.8m)이다(출27:9-13)이다. 지금의 약 330평이다. ②또한 울타리 안에는 안뜰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 ③성소의 길이는 20규빗(9.12m)이며 넓이는 10규빗(4.56m)로서 약 13평이다. 지성소의 크기는 길이가 10규빗(4.56m)이며 넓이가 10규빗(4.56m)로서 약 6.5평이다.

2. 성막의 안뜰과 바깥뜰

①성막은 안뜰과 바깥뜰로 구분했다. 안뜰과 바깥뜰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얀 세마포로 울타리를 쳤다. ②울타리는 세마포 휘장으로 300규빗(136.8m)을 둘러쳤다. 중간에 구석에 놋기둥 60개로 말뚝을 쳐서 끈으로 휘장을 든든하게 붙들어매었다. ③세마포는 의의 옷을, 놋은 구리뱀, 즉 십자가를, 은은 구속의 은총을, 기둥은 진리를 말뚝은 예수님의 고난을 밧줄은 사랑의 줄을 의미한다.

목 8/25

성막의 덮개를 4중으로 견고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이처럼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양의 가죽은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염소 털은 버림받음을, 해달의 가죽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한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구약의 사건들과 물건들과 짐승들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나 그림자로 그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다.

성막 휘장의 재료들 출26:1-14

한주간나눔

앞에서는(27장) 성막의 전체 구도를 살폈다. 그리고 다시 26장으로 돌아왔다. 성막의 울타리 안에는 번제단이 있고 큰 물 항아리가 있다. 그리고 안쪽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를 합하면 약 20평 정도이다. 성소와 지성소는 성막 안뜰에서 볼 수 없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 또 다른 성막이 지어져야 한다.

1. 성막을 덮을 수 있는 휘장

①성막을 덮을 수 있는 휘장 열 폭을 만들라고 하셨다(1절). ②매 폭의 길이는 28규빗(12.8m)이며, 넓이는 4규빗(약1.8m)이다. ③휘장의 천의 재료는 가늘게 꼰 베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했다. 천의 재료의 영적 의미는 청색 실은 생명의 주권(그리스도)을 의미하며(요11:25), 자색 실은 왕권(그리스도)을 의미하며, 홍색 실은 희생(그리스도)을 의미한다.

2. 염소 털로 휘장을 덮어라

①천으로 만든 휘장 다음에 염소 털로 덮을 휘장을 만들되 그 폭의 길이가 13.6m, 넓이가 1.8m이다. ②또한 그 위에 붉은 물을 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덮으라고 했다(14절). ③그리고 또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으라고 했다. 이렇게 성막의 휘장은 천으로, 염소 털로, 염소 가죽으로 그리고 해달의 가죽 네 겹으로 덮었다.

다윗과 요나단의 참된 우정

다윗왕국(5강) 삼상20:12-13

함께하는 주일말씀

들어가는 말

유교(儒敎) 문화권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은 혈연 관계를 가장 우선시 했습니다. 특히 제사(祭祀) 문화와 관직문화는 철저하게 혈연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혈연관계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두 면이 있는데 때로는 반사회적인 경향을 낳기도 합니다. 혈연관계가 권력과 밀착되었을 때 대의(大義)를 저버리고 국민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옆에 있고 명예가 자신에게 다가올 때 사람이 그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욕하기는 쉬워도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 다 만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매우 감동적인 관계를 보게 됩니다. 다름 아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의 신앙적인 우정을 보겠습니다. 그 우정의 진정한 목적과 참된 우정이 새로운 역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생각

첫째로 요나단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개인적인 욕심을 버렸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은 다윗보다 모든 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전제 국가의 왕권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당연히 세습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나단이 겉옷을 입고 다녔다는 것은 사울의 후계자라는 것을 공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외적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의 아버지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로부터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19:1). 왕권을 앞에 놓고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정적입니다. 정적이 어떤 관계입니까?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관계입니다. 왕권이 자신에게 올 수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다음 왕으로 인정합니다.

둘째로 요나단은 하나님의 명예를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삼상 18장 1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었고 그 때부터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ㄹㅎ락되었다?→ㅆㅑ 말은 히브리어 ?↓ㅉㅆ솨르?→ㄱㄲ서 ?→ㄷㄴ다(tie)?, ?→ㄹㅆ다(bind)?, ?↓ㄷㄲ다(knit)? 등의 의미 사용됩니다. 곧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마음의 띠로 단단히 동여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그 어떤 것에 의해서 그 누구도 그 마음을 나누어 놀 수 없을 정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의 ?↓ㄲㄴ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ㅅㅌ는 말씀은 지워지지 않도록 마음에 박힌다는 뜻입니다. 이는 잠언 3장 3절의 ?↓ㅅㅈ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 판에 새기라?↑ㅃ 한 말씀과 같습니다.

셋째로 요나단은 혈육적인 관계보다도 대의(大義)를 위해서 아버지를 거역하고 다윗을 돕는 자로 섰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순일하게 섬기는 신앙 때문에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고 그 사랑의 증표로서 언약을 맺습니다(삼상18:3). 이것은 상호간의 우정과 신뢰와 사랑을 계속 유지하자는 엄숙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당대의 자신들만이 아니라 후손들의 대(代)에 이르기까지 영속적으로 지속되기를 바라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은 거듭 언약을 합니다(삼상18:3, 삼상20:14, 삼상23:18). 서로가 생명을 지켜주고 가정을 지켜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이 요나단에게는 큰 갈등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윗을 견제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일은 물론 아버지의 왕권도 생각해서 이지만 어찌 보면 다음 보위를 든든하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생각일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명령에는 자식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이냐, 다윗이냐의 선택은 요나단에게는 많은 갈등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일반 사람들이 따르기 쉬운 길을 져버립니다. 곧 아버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합니다. 혈육을 버리고 우정을 선택합니다.

신앙과 혈육의 관계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윗을 돕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다윗에게 알려서 다윗을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요나단의 처신에서 신앙의 소중한 면들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신앙은 혈육의 관계를 초월해야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 제자가 ?→ㅉㅣ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ㅇㅌ고 하였을 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ㅃ 하여 비록 자기 부친의 죽음이지만 여기에 매여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눅 9:57-62).

교회를 이룰 때 남편과 아내가 같이 건강하게 깨닫고 나아가야 합니다. 한 사람만 건강하다고 해서 바르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할 때는 그 사회에 속한 모두가 건강한 의식을 가져야 되고 건강한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연약한 자의 끊임없는 설득을 아내나 남편이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신령치 못한 자가 더 적극적이고 더욱 열심을 내어서 건강한 의식을 가진 자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적인 정을 이용해서 사람을 연약한 쪽으로 이끌거나 또 이끌림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의 관계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의 역사 경영을 보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참된 신앙에서 온 사랑은 하나님이 내신 생의 본문과 우주의 질서와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지 않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때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다고 할 때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ㄱㅏ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한다?→ㅇㅌ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초라하게 생을 살아가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먼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생명이 없이 인생에 대한 안정된 삶이 없는 것은 불완전한 세상의 것들에 우선을 두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사랑의 우선 순위를 분명하게 정한 사람입니다. 만약 사랑의 우선 순위를 뒤바꾸었더라면 다윗이 왕이 되는데는 훨씬 더 어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에 지장을 주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쉽게 나올 수 있는 혈연적, 인본적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즉 예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우선하여 당신을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전면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제자 된 자의 제일의 의무요 본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definition)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다윗을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ㅈㅐ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요15:13)는 말처럼 요나단은 매우 큰 사랑을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을 앞에 두고 제자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ㅇㅌ고 물으실 때에 ?↓ㄱㅏ파스?→ㄲ 묻습니다. 즉 가장 위대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하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지 못하고 ?■ㄱㅏ로?↓ㅈㅣ 사랑을 합니다. 즉 주님을 친구처럼 사랑한다고 답을 합니다. 두 번째도 주님이 베들에게 아카페적 사랑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묻자 베드로 역사 똑같은 답을 합니다. 나는 주님을 친구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세 번째 물으실 때에는 ?→ㄴ가 정말 나를 친구처럼 사랑하느냐??→ㅇㅌ고 묻자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친구처럼 사랑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목적 없는 사랑은 불의를 낳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주의 질서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자기를 사랑하기에 급급한 이 시대입니다. 도무지 자기를 부인하기에 이르는 신앙을 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서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역사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하는 다윗에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음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존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와줄 친구가 없는 시대입니다.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가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세상 적인 관계를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를 추구하는 바른 사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어두움을 거두어 가시고 새로운 역사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한주간나눔

진설병을 두는 상 출25:23-30

다시 25장으로 돌아왔다. 언약궤를 만든 다음에 진설병을 만들라고 하셨다. 진설병이란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떡을 의미한다.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성소 안의 진설병 상위에다 두 줄로 6개씩 모두 12개의 떡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다(레24:8). 왜 12개의 떡일까? 이는 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공평하게 먹이실 것이며 언약 백성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게 할 것을 예표한 사건이다.

1. 진설병의 재료와 크기

①진설상은 그 재료가 조각목이다. 그리고 정금으로 싼 후에 금테를 주위에 두르도록 했다. ②상의 크기는 길이가 2규빗(91.2), 폭이 1규빗(45.6cm), 높이가 1.5규빗(68.4cm)이다. 상의 크기가 법궤보다 작지만 높이는 법궤와 같게 설계되어졌다. ③그런데 이 상 우에는 항상 떡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진설병 상이라고 부른다.

2. 진설병의 설계

①상 주변에 턱을 만들고 그 턱 주변을 금으로 테를 만들어라 이는 떡 그릇이 밖으로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②또한 네 모퉁이에 금고리 넷을 만들어 달아라 이는 상을 메기 위함이다. ③그리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라. 그리고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어라. 언약궤와 같이 진설병도 사람이 어깨에 메어서 옮기게 했다.

월 8/22

여기에 상과 떡은 비유적인 의미가 있다. 상은 사랑의 교제를 상징한다. 사울의 자식으로서 다윗의 사랑을 받은 므비보셋은 다윗의 밥상에서 밥을 먹었다. 성소의 상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상징한다. 또한 떡은 예수님의 몸을 비유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요6:31-35).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한 몸이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한주간나눔

등잔대와 기구들 출25:31-40

본문은 등잔대에 대한 설계이다. 성소 안에 들어서면 우편에는 떡 상이 있고 왼편에는 등잔이 있다. 성소 안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외부의 빛이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등대의 불빛만이 비쳐졌다. 등대는 등불이라고도 말하고 촛대라고도 말한다. 일곱 개의 촛대가 있기 일곱 촛대라고도 말한다. 등잔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살펴본다.

1.재료와 만드는 방법

①재료는 정금 한 달란트로(약 42kg, 4만달러) 제작되었다. 등대는 가지 일곱 개가 있고 가운데 하나를 중심으로 양쪽에 각 세 개씩을 만들었다. ②정금은 신앙을(벧전1:7), 촛대는 교회를(계1:20) 상징한다. ③정금을 부어서 만들라고 하지 않고 쳐서 만들라고 했다. 이는 주님의 고난을 상징한다. 또한 우리도 연단을 통해서 성숙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

2. 황금 등대의 용도

①등잔대의 모양은 밑판과 줄기와 가지와 잔과 잘 연결하여 만들고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었다. ②살구꽃은 가장 먼저 피는 꽃으로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③감람유로 불을 밝히되 제사장들이 이 불을 끊이지 않게 해야 한다(출27:21). 빛은 하나님의 본성과 그의 계시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모형이다. 성막 내에서는 다른 불은 필요 없다. 우리의 구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필요하다.

화 8/23

금 촛대의 빛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며(요8:12),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며(마4:16), 어둠의 빛이시며(요1:5),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시다(요1:9). 금촛대는 교회의 모형이다. 계시록을 보면, 일곱 금촛대는 일곱교회라고 했다(계1:20). 금촛대에 불이 밝혀질 때 쓸모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질 때 교회는 생명력이 있게된다.